



조간 제 8191 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남일보

GwangNam.co.kr



2026년 10월 21일 수요일 (음력 9월 11일)

전남광주반도체포럼 출범...800조 클러스터 힘 보탠다

재원 4억5000만원 확보...이사장에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
민관산학연·인재 양성·소부장 협력 구축 등 생태계 조성
전남 동·서부 시민 공론장 확대...전략연구원 설립도 추진

800조원 규모의 호남권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뒷받침할 전남광주반도체포럼이 법인 설립을 마치고 투자 정착과 지역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관련기사 2·3·9면

지역 경제계 등이 출연한 4억5000만원을 초기 재원으로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 소재·부품·장비 협력망 구축, 시민 공감대 형성을 추진하며 대규모 투자가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탬 계획이다.

전남광주반도체포럼(이사장 양진석)은 지난 19일 제1차 임시이사회와 기부금 전달식을 열고 호남권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포럼은 지난 9월 추진위원회를 발족한 이후 한 달여 만에 창립총회와 법인 설립 허가, 등기 절차를 마무리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에 민간의 참여를 더해 기업의 투자 정착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공개한 초기 출연금은 총 4억5000만원이다. 양진석 이사장이 3억원, 이정권 ㈜HD그룹 회장이 1억원을 출연했으며 김

승휘 공동대표와 김영근 ㈜송학건설 회장이 각각 2000만원, 박찬갑 이사가 1000만원을 보탬다.

포럼은 앞으로 반도체 앵커 기업과 지역 상공인, 시민으로 참여 기반을 넓히고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게 운용할 방침이다.

활동 중심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투자가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역 내 산업 생태계를 갖추는 데 뒀다. 대규모 생산시설 투자와 함께 현장에 서 일할 인력, 지역 협력기업, 기업 활동을 뒷받침할 정주여건 등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민·관·산·학·연 협력체계 구축과 투자 정착 지원,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 시민 공론장 운영, 정책 및 인프라 제안 등 5대 핵심 역할을 설정했다.

특히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실무 인력 양성과 소부장 협력망 구축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기업의 수요와 지역의 교육·산업 기반을 연결하고, 행정의 지원만으로 채우기 어려운 현장 과제를 민간 차원에서 발굴해 대응할 계획이다.

올해는 50개 분과 협의체 구성과 기업



전남광주반도체포럼(이사장 양진석)은 지난 19일 제1차 임시이사회와 기부금 전달식을 열고 호남권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정주여건 실태조사, 찾아가는 시민설명회 등을 추진한다. 분과별 논의를 통해 투자 정착에 필요한 과제를 구체화하고, 실태조사로 기업 활동과 인력 유입을 위한 여건을 살필 예정이다.

시민 공론장도 광주에 머물지 않고 전남 동·서부까지 확대한다. 반도체 산업 육성의 필요성과 추진 과제를 지역사회에 공유하고, 호남권 전체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다.

부설 반도체전략연구원 설립도 추진한다. 연구원은 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전략과 클러스터 안착을 위한 정책과 실행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포럼 총대 이사장은 양진석 광주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맡았다. 공동대표에는 정은승 시 반도체전략위원회 위원장과 김승휘 변호사가 선임됐다. 이사회에는 손경종 시 반도체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경제계와 시민사회, 청년, 여성경제인 등 각계 인사가 참여했다.

양진석 전남광주반도체포럼 이사장은 “기업이 원하는 인프라와 인재를 적기에 연결하고, 시민과 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세계적 반도체 거점을 만드는 데 든든한 교두보가 되겠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제17회 전남광주특별시 사회공헌대축제 수상자 발표

고흥군·광산구·광주도시공사 등 8개 개인·단체 ‘종합대상’ 영예 대상 11곳...시상식 내달 10일 오후 2시 광남아카데미

“2026 제17회 전남광주특별시 사회공헌대축제” 종합대상에 고흥군, 광산구, 광주시도시공사, 한솔페이퍼텍㈜, 광주서구가속센터 등 8개 개인·단체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광남일보는 지난 14일 본사 1층 아카데미홀에서 지역주요 기관과 함께 부문별 심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대상(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상)에 고흥군, 광산구, 광주시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재)진도군새마을회, 한솔페이퍼텍㈜, 조경순 (세이프온) 회원, 광주서구가속센터가 선정됐다.

대상에는 (재)광주시북구새마을회, 유은미 서영대 교수, 동구 계림1동주민자치회, 이은아 클로버re100 대표, 조분자 ㈜일호 대표, 기문종 바르게살기운동 여수시협의회 부회장, 광주교통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공단, 김수관 상무수치과 대표원장 등 11개 개인·단체가 수상한다.

최우수상은 김진에 어린이 안전학교 안전강사와 김효중 사랑실은노래봉사단장, 유송자 신한라이프 이사가 선정돼 광남일보 사장상이 수여된다.

학생부 대상은 이민준 (광주고) 군과 신준호 (문흥중) 군이 선정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상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11월10일(화) 오후 2시 광남일보 1층 아카데미홀에서 열린다.

- 종합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상 △고흥군 △광산구 △광주시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재)진도군새마을회 △한솔페이퍼텍㈜ △조경순 △광주서구가속센터
- 대상 ▲광남문화체육재단 이사장상 △(사)광주시북구새마을회 △유은미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회장상 △동구 계림1동주민자치회 △이은아 △조분자 △기문종 △월드비전 회장상 △광주교통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공단 △김수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상 △이민준 △신준호
- 최우수상 ▲광남일보 사장상 △김진에 △김효중 △유송자

공소청 인력 감소...사건 적체·업무 지연 우려

국감 핫이슈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력 감소에 따른 업무 지연과 전남·광주 지역 사건 적체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우위니아 임금체불과 불법 자금용 범죄수익 환수 등 민생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피해자 보호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관련기사 8면

20일 광주지방공소청 5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공소청 출범 이후 조직과 인력 정비 상황을 점검하고, 사건 처리 지연으로 국민 피해가

미제사건 2만건...마약과 등 직접 수사부서 폐지
대우위니아 임금체불 등 민생사건 신속처리 주문

커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은정 의원은 수사와 기소 분리에 따른 인력 감소와 조직 운영 문제를 지적했다. 검사와 수사 인력이 줄어든 데다 사건 관계인 조사 공간 등 시설 문제까지 겹치면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고경순 광주고등공소청장은 보완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수사 인력이 20~30% 줄었으며, 마약과와 수사조사와 등 직접 수사부서도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 공간은

활용해 검사실 조사 공간과 구속 피의자 면담 공간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제사건 적체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오영교 의원은 올해 전남·광주지역 미제사건이 약 2만건에 달한다며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해당 사건들은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송치한 사건으로, 공소청의 처리 지연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 청장은 검사 사직과 직무대리·권한

대행 체제 등으로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검사 정원과 현원 간 격차도 지적하며 인력 문제 해결과 미제사건 해소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대우위니아 임금체불 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 요구도 나왔다. 박은정 의원은 체불임금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사건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우 광주지방공소청장은 일부 사건은 기소했으며, 사건 규모가 크고 관련 자료가 방대해 처리에 시간이 걸렸다고 답했다.

불법 자금용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보호 대책도 거론됐다. 박관택 의원은 연 57%에 달하는 고금리 불법 사금융 피해를 겪던 50대 여성이 숨진 사례를 언급하며 범죄수익 환수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2면에 계속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초대석



서상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생산비조차 보전 어려운 농업 '구조적 한계' 돌파해야"

초대석



안도길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위원장

"전남광주 대전환 기회 경제 대도시 열어나갈 터"

전통에 현대를 더하다



홍은진 루트머지(주) 대표

"전통에 현대 더해 지역 문화유산 콘텐츠로"

시대공감



윤형식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청 도시재생과장

"도시를 바꾸는 건 건물이 아니라 사람"

전남광주의 10월은



노래 흐르는 거리, 꽃으로 물든 강변
남도의 가을이 깊어진다

문득여행



당일치기 영암여행
문화유산이 있는
호남 대표 명촌에서 머물다

2026.10 vol. 161

세상과 함께, 문화와 함께 광남일보 매거진

전략도인

구독문의:(062)370-7080 광고문의:(062)370-7070

전략도인



커버스토리

임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

인문도시를 넘어 AI 경제도시로 대전환 총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미래 다시 그린다

인구증가·인문도시·문화관광 등 성과 토대
민생 중심 행정...AI 헬스케어 미래 동력 육성
노포 맛집 발굴 등 원도심 상권 활성화 박차